

社會科에서 地域學習 內容構成의 實際에 관한 研究

- 連山地方을 사례로 한 내용구성의 scope와 sequence -

全 種 漢*

A Study on the Content Development of Regional Learning in Social Studies

Jong-Han Jeon*

요약 : 이 논문은 사회과교육에 있어 지역학습을 위한 내용구성의 실체를 검토한 것이다. 지역학습의 이상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론적 측면, 제도적 측면, 그리고 실천과정이 요구된다고 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면서도 연구가 미약한 부분이 실천과정에 관한 부분에 있다고 보았다. 지역학습 내용선정의 준거는 해당 지역에 적합하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함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의 사례의 경우에는 '역사지리적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을 준거로서 거론하였다. 그 다음, 사례 지역에 관한 학문적 연구성과에 바탕하여 그 공간적 누층성을 '삶의 공간' [생태적 공간], '사회적 공간', '권력공간'으로 간주한 후, 지역학습을 위한 실제 내용구성의 스코프(scope)와 시퀀스(sequence)를 구성하여 보았다. 이러한 스코프와 시퀀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이트(site) → 상징경관→영역성'이라는 하위 개념들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전개할 수 있었고, 이들에 상응하면서 공간적 스케일은 'local→inter-local→regional'로 확대하였다.

주요어 : 지역학습, 지역지리교육, 지역정체성, 역사지리적 경관, 지역관련담론, 삶의 공간, 사회적 공간, 권력공간

Abstract : In this article, I intended to develop the contents of regional learning in social studies and in geography education. In achieving the goal of regional learning, we have to investigate three facets, i.e. theoretical, organizational, and practical facet. In particular, practical facet is very important one in that it is directly related to content development. As the criteria of content constitution, I proposed two elements, 'historical-geographical landscape' and 'region-related discourse' which are pertinent to the case region, Yonsan in Chungcheongnam-do, Korea. And then, on the basis of disciplinary results in geography, I developed the scope and sequence of contents by utilizing three layers of space which are 'habitat space', 'social space', and 'power space', three geographical concepts of 'site→symbolic landscape→territoriality', and three spatial scales of 'local→inter-local→regional one' correspondingly.

Key Words : regional learning, regional geography education, regional identity, region-related discourse, historical-geographical landscape, habitat space, social space, power space

1. 序 論

현행 교육과정을 개관해 보면,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서 '教育課程의 地域化'라는 관점이 명문화되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듯이, 교육과정의 지역화란 전국을 통괄하는 획

일적인 國家教育課程을 止揚하는 대신, 교육 내용에 각 地域의 特殊性을 반영한다는 취지를 志向한다.¹⁾ 사회과교육 및 지리교육에서, 이 같은 취지가 갖는 배경 혹은 의미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학습자의 실제 삶의 장소를 교육의 범주 안으로 들여오므로써 학교 안에서의 教育內容과 밖에서의 日常生活 사이에 존재

*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 강사
(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하는 間隙을 좁혀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과교육의 스코프(scope)를 학습자가 경험하고 있는 周邊場所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공간 스케일을 점증적으로 넓힘으로써 학생들의 發達段階가 고려된 시퀀스(sequence)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教育課程의 地域化는 학습내용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前提하는 수학교과나 과학교과에서는 거의 무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市民性 涵養을 상위 목표로 설정하는 社會科教育에서, 특히 國土愛 涵養 및 地域正體性 認識을 주된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地理教育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地理教育을 대표하는 教育領域 중에서도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地域學習²⁾은 학생들의 실존적 삶의 공간인 地域을 교육내용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과교육 및 지리교육에 요구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실현하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역학습은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부응한다는 巨視的 側面 이외에도,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場所들의 意味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母學問에서 개발된 地理的 概念과 原理들을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適用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地理的 想像力(geographical imagination)을 신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리교육 및 지리학 兩者 固有의 이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역학습은 추구하는 理想에 비해 現實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필자는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乖離는 대략 세 가지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학습의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지리학적 연구 자료의 量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母學問인 地理學의 몫으로서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지역지리학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는 현실과 관계된다. 현 시점의 지역학습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what'의 문제는 방법으로서의 'how'에 선행하는 최우선적 과제이다. 이 부분에서, 教科內容學으로서 地理學의 지원은 실로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글의 연구 동기에 해당한다.

둘째, 初等教育에서의 지역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의 스코프(scope)와 시퀀스(sequence)가 中等教

育課程으로까지 연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지역학습의 스코프와 시퀀스가 지금처럼 初等學校 教育課程에 한정된다면, 지역에 함양 및 지역정체성 인식과 같은 지역학습의 理想도 제한적, 단편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거나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임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 점에서, 현행 중등학교 사회과 및 지리과 교육과정의 地域地理 부분은 과감히 한국 지리라는 새로운 교과로 독립시키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교과 안에서 계통지리 영역의 응용 사례로서 통합시킬 필요가 있고, 그 대신 지역지리가 빠져나간 빈 공간을 학습자가 처한 지역의 地域學習 內容으로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사실상, 중등학교 사회과(지리) 교과서의 지역지리 부분, 즉 각 지방의 지역지리 내용은 系統地理와 함께 地理學의 兩大 분야를 이루는 地域地理의 教育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이 부분의 교육목표나 내용구성이 앞서 배운 계통지리의 주요 지리 개념을 활용한 '각 지역의 설명과 이해, 정보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등학교 사회과(지리)교육과정의 地域地理 부분은 '학습자를 둘러싼 주변 장소의 地域正體性 및 지역에 함양'을 추구하는 초등교육과정의 地域學習과는 그 목표나 내용구성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동안 혼용하여 왔던 地域地理教育(地誌教育)과 地域學習 개념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는, 地理教育 專門家 혹은 教科教育學者들의 작업과 관련된 것인데, 지역지리학 연구 성과로부터 지역학습을 위한 내용을 추출하여 재구성하려는 실천적 시도가 미약하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역지리학 연구 성과가 충족되는 것이 제일 먼저 요구되지만, 특히 '지역학습을 위한 내용구성은 學問으로서의 地理學의 시각이 아니라 教育으로서의 地理教育의 관점에서 再構成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과교육학의 입장에서 보면, 전술한 두 요인에 비해 이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한 事實일 것이다. 특히, 본 고의 문제의식은 첫 번째 및 세 번째 사항과 직접 연관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현재의 지역학습은 현실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라는 흐름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학습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비록 교육과정 개발이 미약하고 기존의 지역지리학 연구 성과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敎育이라는 시야에서 검토하는 일과, 발달 수준별 적합성을 고려하면서 내용 구성을 위한 실험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現今 사회교육의 당면 과제를 교과이론, 교과제도, 실천과정의 세 부분에 둔다고 한다면,³⁾ 특히 학습자의 삶의 장소를 도입하는 지역학습의 성격상 실천과정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역학습의 실천을 위한 實際 內容構成 및 그에 관한 지속적 實驗 研究의 필요성을 인식한 위에서 글의 논리와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 지역학습이 갖는 교육학적 중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지역학습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에 관한 사례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지역학습 및 지역지리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서재천, 1987; 남상준, 1995; 권혁풍, 1995; 조성욱, 1997), 내용구성의 논리와 준거(이양우, 1986; 권정화, 1997; 박승규·심광택, 1999), 지역학습의 교수-학습 방법(황홍섭, 1995; 최홍규, 2001), 지역학습과 관련된 부분의 교과서 내용 분석(남상준, 1996; 남호엽·김일기, 2001) 등과 관련하여는 몇몇 연구물이 발표됨으로써 지역학습의 의미와 방법론을 새롭게 환기시켜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구성을 위한 실제 사례 연구는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다. 내용구성의 실재를 통해 비로소 기존의 이론적 논의가 현실적 적용을 넘나들 수 있는 국면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임을 상기한다면, 이 같은 실험적 연구가 같은 의미는 지대하다. 이러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학문적 성과가 교과교육학적 내용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용구성의 실재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리학적 연구 성과에 심취해야 함은 물론, 동시에 교과교육학적 관점에 터야해야 한다.

본 고의 목적은 먼저 ‘충청남도 연산’이라는 하나의 사례 지역을 선정한 후, 이 지역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성과와 현지 답사를 토대로 지역학습 내용구성의 실재를 실험적으로 구현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학습의 출발점으로서 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테마를 추출하여 지역학습의 준거(criteria)로 삼는다. 이 준거를 토대로 내용선정의 범위(scope)와 내용배열의 논리(sequence)를 정하고, 지역학습을 위한 실제 내용구성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내용배열의 논리를 염두에 두고 학습내용의 위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했는데, 이것은 현행 교육과정 체계인 ‘초등→중등교육과정’의 순서를 염두에 두면서 中等教育課程의 地域學習을 상정한 것이다. 세 가지 단계가 어떤 학령 혹은 학년에 相應하는가 하는 적절성은 앞으로 교육심리학 및 교육과정학 분야로부터 후속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될 문제일 것이다. 다만, 필자는 주로 활용되는 지리적 개념들의 난이도 수준과 출현 빈도, 공간적 스케일의 순차적 확대,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세 개의 단계를 比定하고자 하였음을 밝혀 둔다. 물론, 실제 학습에서 학습자가 지리적 현상의 스케일을 스스로 전환할 수 있고 지리적 상상력을 확산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본 고에서 제시한 단계별 경계를 넘는 최상의 학습 상황이 될 것이다.

2. 地域學習의 意味와 內容構成的 實際

1) 地域學習의 목표와 의미

地域學習의 뿌리는 敎育課程의 地域化라는 국가 교육 정책과 지리학의 地域地理 분야에 동시에 걸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학습 내용구성을 위한 주요 資料源은 지역지리 분야의 연구성과라는 점이 분명하지만,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추구하는 이념을 지향하며 탄생한 것이 지역학습이라는 점에서, 現 初等敎育과정 地域學習의 의미는 中等敎育과정의 地域地理敎育과는 구분되고 있다. 가령, 前者의 胎生的 배경은 場所의 意味의 理解라는 차원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地域正體性 인식, 地域愛 함양에

있는 것에 반해, 後者는 학습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정보 내지 지식 습득의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들의 특성들, 즉 地域性의 이해를 主目標로 삼는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목표와 내용을 참고하여, 초등교육과정 지역학습과 중등교육과정의 지역지리 내용의 특성들을 서로 대비해 보면 표 1과 같다.

사회와 지역학습에 관한 논의에서는 자칫 地域學習을 地域地理教育과 혼동할 우려가 있고, 지역지리학 그 자체가 중요한 자료원임은 분명하나 지역학습의 내용구성을 위한 논리적 배경이나 내용선정의 스코프와 시퀀스조차 지역지리학의 연구경향 내지 성과에서 찾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또한 지역지리학의 연구 관점이 그대로 지역학습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기도 한다. 어쨌든, 地域學習의 탄생 배경이나 성격은 地域地理教育의 그것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세계화교육을 지

향하는 주변학습⁴⁾이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학교운동⁵⁾과도 차별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학습이 지역지리학으로부터 주요 자료를 얻고 있고 하위 목표와 학습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지역지리교육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지리교육의 일부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같은 점들을 볼 때, 지역학습의 목표에는 서로 다른 視野를 가진 두 개의 지향점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태생적 배경의 연장선에서 학습자들이 삶의 장소에 대한 地域正體性의 認識에 있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의 실제 경험과 삶의 현장에 터하여 地理學의 概念들을 효과적으로 理解하고 活用케 한다는 점에 있다. 이 중 첫 번째 목표는 지리교육이 현행 교육과정상 社會科教育의 일부이고 크게는 教育의 일부라는 점에서 일종의 教育學的 目的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목

표 1. 제7차 초등교육과정 地域學習과 중등교육과정 地域地理教育의 특성 비교⁶⁾

구 분	地域學習(region/community learning)	地域地理教育(地誌教育)(regional geography learning)
목표(지향점)	地域愛 함양 地域正體性 인식	地域性 추출·인식 地域情報의 분류, 습득, 地域區分
태생적 배경	· 교육과정의 지역화. ·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각과 지역애를 길러주려는 교육정책, 교육 과정상의 요구. · 사회과교육의 일부로서 출현 (내용구성에서 통합을 지향).	· 지리학의 양대 분야인 계통지리학, 지역지리학의 교육 · 학문적 후세대 양성을 지향하는 학문적 요구 · 지리학/지리교육의 일부로서 존재. (대부분 지리적인 내용으로 구성)
'지역'의 의미	· 지역/지역사회를 학습자의 실존적 삶의 장소로서 이해. · 개념 정의와 공간적 스케일에 있어 매우 융통성이 있음.	· 地域을 지리학자의 개념적 도구로서 이해. · 공간적 스케일이 비교적 고정적임. (local과 national 스케일의 중간개념)
7차 교육과정상시행여부	초등교육과정의 '지역학습' 내용	중등교육과정 '각 지방의 생활' 단원
학습내용 선정의 준거	· 그 지역에 대해 의미있는 요소라면 그 유형에 크게 관계치 않고 가능. · 학문적 논리보다는 교육의 논리에 의거하여 학습내용이 선별·구성.	· 지역지리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합의된 결과/성과들이 학습 내용. · 지역지리학의 연구 경향이나 관점이 내용 선별과 구성에 크게 영향.
학습내용의 특징	· 학습자를 둘러싼 의미 있는 장소와 경관의 理解. ·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 선정 · 地域正體性의 시·공간적 多元性 인식(地域區分은 크게 중요치 않음). · 학습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지역 사회의 일상생활, 형성과정을 살핌으로써 심층적으로 이해.	· 地理的 概念이나 理論을 이해하기 위해 각종 지역 사례를 통한 훈련. · 지역별로 單一한 地域性을 추출. · 여러 地域들을 서로 區分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기능(skill). · 복잡한 지역 정보를 분류하고 습득하며, 지역을 이해하는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시 됨.

표는 地理學과 地理教育의 運命的 關係로부터, 즉 지리학을 母學問으로 하며 그로부터 내용구성을 위한 자료의 대부분을 구할 수 밖에 없다는 存在論의 立場에서 부과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 같은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둔다면, 지역학습의 의미 역시 두 가지 차원을 갖게 된다. 하나는 지역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장소와 경관들의 意味를 對話的(dialogical)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전종한, 1997), 또 하나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의 지역학습을 통해 획득한 지리적 개념을 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공간을 說明하고 理解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종한, 2001). 前者와 관련해서 볼 때 학습자들은 지역정체성을 고정적 실체로서가 아닌, 空間 스케일에 따라 융통성 있고 時間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실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한편 後者의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은 인지 구조 발달단계상 공간적 스케일의 轉移가 가능한 수준에 올라 단순한 '지리 익히기'가 아닌 확산적 '지리 하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전자는 삶의 場所에 대한 理解와 관련되는 지역학습의 의미이고, 후자는 地理學의 概念의 效果的 習得과 관련되는 의미인 것이다. 지역학습이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story)나 공간적 사실들(facts)만으로 구성될 수 없고, 지리학적 개념들과 원리들이 그 내용구성에 끊임없이 관련할 수 밖에 없는 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공존하는 이러한 목적과 의미는 지속적일 것이라 보여진다.

2) 地域學習 內容構成의 출발점:

準據와 스코프(scope)

지역학습을 위한 공동된 출발점은 可視的인 景觀(landscape)과 地域關聯 談論(region-related discourse)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可視的 景觀(landscape)은 다양한 맥락의 時·空間 體系, 즉 크로노토프(chronotope)를 갖는 지리적 현상으로 이해된다.⁷⁾ 여기에는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경관은 물론이고 넓게는 비가시적인 地名까지를 포함한다. 경관은 특정한 시기부터 분명한 장소를 점유한다는 점에서 장소에 意味를 부여하는 역할, 즉 場所化를 주도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地域關聯 談論(region-related discourse)이란 해당 지역에 대

해 지역 內外部에서 인식되어온 역사적, 사회적 의식이나 어휘, 혹은 편견을 포함한다.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차후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것은 일종의 담론(discourse)이라 명명할 수 있다. 지역학습에서 이것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지역 관련 담론이 그 地域의 歷史, 社會, 空間的 正體性에 관련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지역 관련 담론은 지역학습의 흥미를 촉발할 수 있는 요소임과 동시에 교수-학습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경관과 지역관련 담론, 이 양자간의 관계는 마치 공간과 사회, 형태와 기능, 패턴과 과정 등등의 관계들 속에 내재하는 메카니즘과 같은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 某種의 辨證法的 關係가 존재할 것이라는 선형적 추론으로부터 이들 두 요소가 추출된 것이다. 사실, 물질경관이 담론을 구성해 내며 역으로 담론은 물질경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이 같은 순환론적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이 양자 사이의 관계는 밀접하며, 동시에 이들은 어떤 지역에서나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먼저, 해당 지역의 지역학습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가시적 물질경관의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의 歷史的 層位나 地域的 特殊性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규정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동임해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經濟的 産業景觀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都市景觀이 매우 의미 있는 경관의 단서가 되듯이, 이 글에서 사례로 제시하고자 하는 충청도 連山 지방의 경우는 歷史地理的 景觀, 특히 儒敎文化景觀을 그 지역에 관한 대표적인 경관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학습의 출발점으로서의 가시적 경관의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지역의 학습에서 意味있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⁸⁾ 다만, 그 지역의 역사적 象徵性和 空間적 代表性을 고려하여 의미있는 경관을 추출하는 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징성과 대표성이 고려된 가시적 경관의 유형은 해당 지역의 지역학습을 위한 내용선정의 한 준거로서 내세울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地域關聯 談論을 포착하는 일이 가시적 물질경관 유형의 파악과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 관련 담론이란 그 지역의 성격과 관련된 修辭的

言術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언술은 아직 확실한 진실(truth)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종의 담론(discourse)인 것이다. 특히, 지역관련 담론이란 그 지역과 관련된 '사회와 공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함축한다는 점에서 지역학을 넘어 지리교육 전체로 보아도 상당히 의미 있는 요소이다. 지역관련 담론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所聞으로 떠돌기도 하고 각종 문헌상에 표현되기도 하고,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 외부에서도 생산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관련 담론의 포착은 그 지역 주민과의 면담과, 과거와 현재를 망라하는 지역관련 기록들의 총괄적 탐색으로부터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충청도 연산과 회덕 일대, 특히 連山 지방에 초점을 두고 지역학습 내용구성의 사례를 제시하려고 한다. 충청도 연산의 지역학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특히 이 지역에 관한 지역관련 담론에 관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⁹⁾

연산지방에 관한 지역관련 담론의 예시:

역사적으로 볼 때 '連山-懷德'을 하나의 지역사회로 부각시킨 담론 중의 하나는 '호서사림과의 본거지'라는 것이다. 구한말의 유학자 황현은 자신의 『매천야록』에서 조선의 세 가지 폐단 중 하나로 '호서지방의 사대부'를 거론한 바 있다. 그의 생존시기가 19세기에 해당하므로, 19세기의 조선에 橫行했던 주요 담론 중에 '湖西士林派'라는 '사회-공간적 실체'가 자리했던 것이다. 연산이 속해 있는 '호서지방이라는 공간'을 '사림파라는 유교문화'와 연결짓고 있는 담론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당시, 사림이라는 일종의 유교적 '社會集團'이 호서라는 '空間'을 통해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連山-懷德'을 '사회-공간 실체', 즉 하나의 지역사회'로 인식한 위와 같은 담론적 단서들은 그 이전 시기의 기록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인조 14년(1636년)의 『양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世道가 나빠지면서 풍속이 못되어져 스승과 제자의 氣風이 없어졌는데, 유독(A) 連山의 김장생에게만은 生徒가 있습니다. ... 懷德의 송준길, 송시열은 모두 김장생의 門人인데, 臣[完城君 최명길]은 비록 서로 만나보지는 못했으나(B), 그들이 살고 있는 地方[連山-懷德]의 사람들은(C) 감히 멋대로 그른 짓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D)".

여기서 A, B, C, D로 표시한 부분은 '연산-회덕'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A)·사회(B,D)·공간(C)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담론임을 보여준다: '연산-회덕'이 하나의 지역사회로 언급되고 있고, 특히 世上[사회적, 공간적 측면을 모두 포함]의 다른 지역과 差別的이라는 認識을 갖고 있다. 또한,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이 지역사회의 인물들과 '직접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B와 D를 참조), 국왕에게까지 이러한 上疏를 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의 시·공간상에서 이미 '正常化된' 談論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연산-회덕'이라는 '地域'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相關的으로 인식한 담론은 그 지역사회 자체 內에서도 '만들어'졌다. 懷德鄉約의 서문[1672년]에 그것이 나타난다. 회덕향약은 이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은진송씨, 진주강씨, 경주김씨, 연안이씨, 동래정씨, 회덕황씨 등의 주요 종족집단들이 작성한 것인데, 서문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湖西'의 3大 巨族이 연산, 니산, 회덕에 거주하고 있는 종족집단이라는 것: 둘째, 3대 종족집단이란 연산의 광산김씨, 니산의 파평윤씨, 회덕의 은진송씨라는 것: 셋째, 이들 거족은 累代에 걸쳐 상호 중첩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의 地域社會를 형성하였다는 점.

전술한 可視的 物質景觀과 地域關聯 談論은 連山 지역의 지역학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특정 지역의 지역학을 위한 準據(criteria)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連山 지방을 대상으로 한 地域學習을 구상할 때, 이 지역의 物質景觀과 地域關聯 談論을 각각 대변하는 '士林派와 그들의 儒敎文化景觀' 및 '주요 宗族集團의 空間占有過程과 湖西士大夫, 충청도 양반을 대변하는 그들간의 社會的 關係'라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연산 지방에 매우 의미 있는 테마로서, 이 지역의 지역학을 시작할 때 준거가 된다.

물론, 이 두 가지 준거는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특히, 종족집단들은 거주지 입지를 시작으로 점차 혈연, 지연, 학연관계로 구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중첩시켜 갔고, 그 결과 호서사대부, 사림파, 충청도 양반이라는 담론이 생산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점유 공간을 유교문화경관으로 채움으로써 '호서유교문화지역'으로 만들어 나갔다. 이 두 준거는 다름 아닌 地域正體性的의 형성과정과정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이들 준거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 그 자체로서 내용선정의 범위(scope)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3) 內容構成을 위한 下位概念의 선정

필자는 이렇게 지역학습을 위한 내용선정의 준거와 범위가 설정될 때, 비로소 지역학습의 목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하위 개념들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연산의 경우에는 지역정체성 형성이라는 내용선정의 범위를 염두에 두면서,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핵심을 이룬다고 판단된 사이트(site), 상징경관(symbolic landscape), 영역(territory)이라는 개념을 이 지역의 지역학습에 適合한 構成的 要素로 보았다.

이 때, 사이트는 종족집단의 거주지 입지와 공간 점유 과정, 상징경관은 종족집단간 사회적 관계와 그것의 공간적 범위, 그리고 영역은 유교문화경관 및 그를 통해 드러나는 호서유교문화지역의 영역성에서 각각 내용구성을 위한 핵심 개념이 될 것이다. 한편, 사이트(site)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인지발달단계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반대로 영역(territory)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발달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그리고 상징경관(symbolic landscape)은 사이트(site)와 영역(territory)을 이어주는 중간 개념으로서 '사이트(site)→象徵景觀→領域'이라는 시간적 순서 속에 위치하며, 학습자의 인지발달단계상 중간단계에 적합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개념과 논리를 중심으로 지역학습 내용구성의 실체를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3. 內容構成의 事例: 충청남도 連山 地方

연산 지방은 오늘날 충청남도 논산시에 속한 하나의 행정 면단위에 불과하지만, 100여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충청도·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상징적인 유교문화 중심지였다. 이 곳의 유교문화는 호서사림파라 불리는 일단의 儒學派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이들은 조선 후기 내내 영남사림파를 견제하며 중앙 정계를 장악했던 존재이다. 율곡 이이의 수제자였던 사계 김장생이 충청도 연산에 근거지를 두면서, 연산은 그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되는 호서사림파의 중심지로서 영남지방과 대비되는 독자적인 유교문화경관과 領域性(territoriality)을 충

청·전라도 일대에 확산시키게 된다(전종환, 2002).

조선시기 이전부터 연산 지방은 여러 종족집단들의 '삶의 공간'이었는데, 김장생으로 대표되는 광산김씨가 이 지방에 더하면서부터 '사회적 공간'이라는 새로운 장소성이 부가되었다. 그 후 김장생과 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학문적 계보망이 탄생하였는데, 이것이 상징경관을 매개로 사회·공간적으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연산 지방은 유교문화의 중심지로서 '권력 공간'의 성격을 추가하게 된다. 이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아래에서는 연산 지방의 지역학습을 위한 내용배열의 시퀀스(sequence)를 "'삶의 공간' [생태적 공간]으로서의 연산→'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연산→'권력 공간'으로서의 연산"으로 설정하여 학습 내용의 스코프(scope)를 한정하고 내용구성의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¹⁰⁾

1) '삶의 공간' [생태적 공간]으로서의 연산

연산 일대가 삶의 공간으로서 정착되는 과정은 연산천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주 정착과정의 초기인 1300년대 중반에는 여산송씨를 시작으로 혼인 관계를 통해 들어온 종족 집단들이 상류의 연산천 북쪽 사면의 소규모 분지에 정착하기 시작한다. 이런 면에서 이들을 이 고장의 토착성씨라 볼 수 있다. 이후 점차 연산천 중하류의 넓은 분지 쪽으로 고성이씨, 성주도씨, 가평이씨, 기계유씨, 전주이씨, 광산김씨가 거주공간을 하나씩 점유하여 가는데, 우선적으로 배산입수의 입지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연산 지방 북쪽 사면의 분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산천 하류 방향을 향해 차례대로 정착하다가, 후에는 연산 지방 남쪽 사면의 분지들로 더 넓은 거주지를 찾아 이주 정착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정착 과정은 이주 당시 가장 중요한 생업인 농업과 관련하여 각 이주 집단들이 적절하게 개척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이 고장으로 들어온 이주 집단은 당시의 농업경제가 밭농사를 주로 하던 때로서 이에 적절한 산간의 작은 분지를 선호하면서 삶을 엮어 가고, 점차 논농사가 중요해지면서 후기에 이주해온 사람들은 이에 적절한 보다 넓은 공간에 정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초기 정착 집단의 거주지를 피해 하류로 가게 되는 것과



지도 1. 연산을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갔던 주요
종족집단의 입향 순위와 촌락입지

맞물려, 후에 발농사보다는 논농사가 더욱 중요한 생업이 되면서 이것이 바로 후기이주집단이 이 고장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된다.

이주 역사가 길어지면서부터 상류의 인구 부양력이 낮은 규모의 분지에 터를 잡은 초기 이주 집단인 여산송씨는 차후에 동일한 공간으로 이주해 온 전주이씨에 의해 압출되는 사례가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가장 늦게 이주해 온 광산김씨의 경우는 다른 종족집단들과 달리 여산송씨와의 혼인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연산 지방에 들어왔는데, 북쪽으로 연산천을 바라보고 있는 비교적 하류의 넓은 분지에 터를 잡게 된다. 이 곳에서 그들은 보다 큰 인구 부양력을 갖춘 토지를 제공받게 되고, 이를 통해 생업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생력을 갖춘 종족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광산김씨의 경우 정착 시기는 제일 늦었지만 이주하기 이전부터 중앙 정계에 계속 진출했던 집단이었다. 결국, 광산김씨가 1400년대 이후 이 고장에 가장 확고하게 자리하게 되면서 중심 세력으로 부각하게 되는 데는 풍요로운 생태적 환경을

갖춘 사이트(site)에 입지했던 요인 위에 독자성을 띤 그들의 권력 배경이 결합되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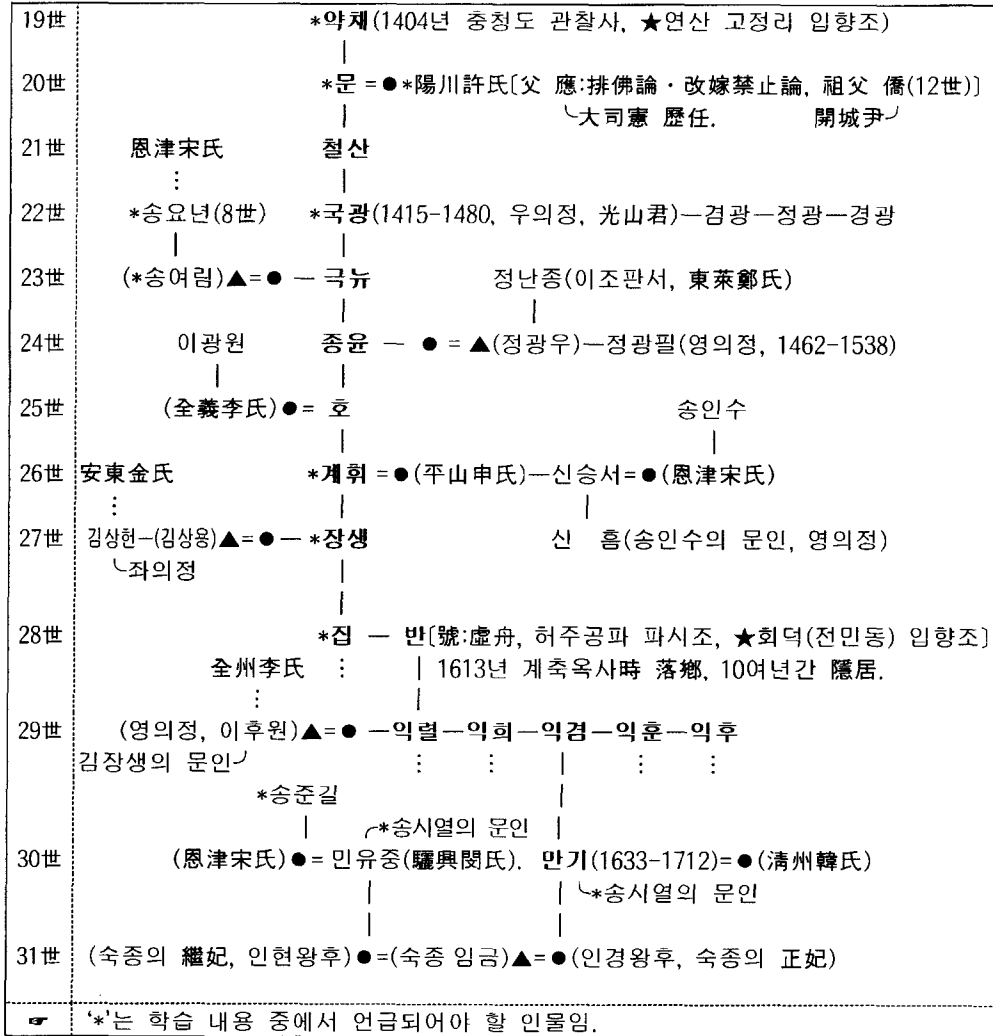
2)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연산

혈연 관계를 중심 매개체로 하여 나름대로 각종족 집단별로 연산 일대를 그들의 삶의 공간으로 형성해 나간 초기의 정착 시기를 지나, 이제는 광산김씨가 이전의 여산송씨 및 기존의 이주 성씨 집단과 구별되게 연산 지방을 삶의 공간으로부터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중심 세력이 된다. 그들은 점차 이 일대에서 단순히 혈연 및 지연 관계를 넘어서 경관(landscape)을 매개로 연산 지방의 종족집단들을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로 흡수해 나간다(표 2 참조).

광산김씨에 의한 최초의 경관은 양천 허씨 정려와 김국광 사당이다. 양천허씨 정려는 초기 정착과정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인물인 양천허씨를 기리는 것이고, 허씨의 손자인 김국광 사당은 중앙 정계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종족경관이다. 이러한 경관의 생산 과정은 다분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광산김씨가 연산 일대에서 여산송씨를 비롯한 기타 종족집단들과 공간과 사회 양면에서 차별성을 부여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초기의 경관은 광산김씨 내부의 결속을 다지면서 그들의 점유공간을 장소화해 가는 일종의 상징경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산김씨가 이 일대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 맺기를 이루게 되는 것은 이들에 의해 운영된 정회당이라는 서당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이것은 이전의 경관이 권력과시형 경관이었다면, 이 단계에서의 경관은 시혜·교화의 기능을 하면서 연산 지방에서 사회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확보해 가는데 기여하게 된다. 광산김씨에 의해 정회당이 건립된 1500년대 초기는 '광산' 김씨가 '연산' 광김¹¹⁾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시기로서, 이 때에 이르러 연산이라는 지명이 비로소 광산김씨의 장소 정체성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연산 일대가 광산김씨에 의해 하나의 삶의 공간에서 사회적 공간으로 이전되어 가기 시작한다.

표 2. '사회적 공간' 형성의 배경이 되었던 광산김씨의 사회적 관계망



이후 정회당에 이어 광산김씨의 주도 하에 양성당과 임리정이라는 서당이 같은 연산현에 순차적으로 세워지는데, 양성당과 임리정의 통학권은 연산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정회당을 운영한 김계휘의 사상은 그의 벗인 율곡과 학문적 계보를 같이 하고, 그의 아들 김장생은 율곡 이이의 수제자로서 양성당과 임리정을 건립하여 운영했기 때문에, 정회당, 양성당, 임리정이라는 경관의 생산 과정에서 광산김씨 김장생을 중심으로 한 호서사림과라는 학연계보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광산김씨의 사회적 관계는 회덕현의 은진송씨, 니산현의 파평윤씨, 전의현의 전의이씨 등 주

변의 수위 성씨로까지 더욱 활발하게 연결된다. 이와 같이 정회당을 통해 형성된 학문적 계보의식은 양성당과 임리정을 통해 심화·재생산되었고, 이 두 상징경관(symbolic landscape)이 요체가 되어 광산김씨의 장소 정체성은 연산현의 범위를 넘어서 호서 지방이라는 지역 스케일(regional scale)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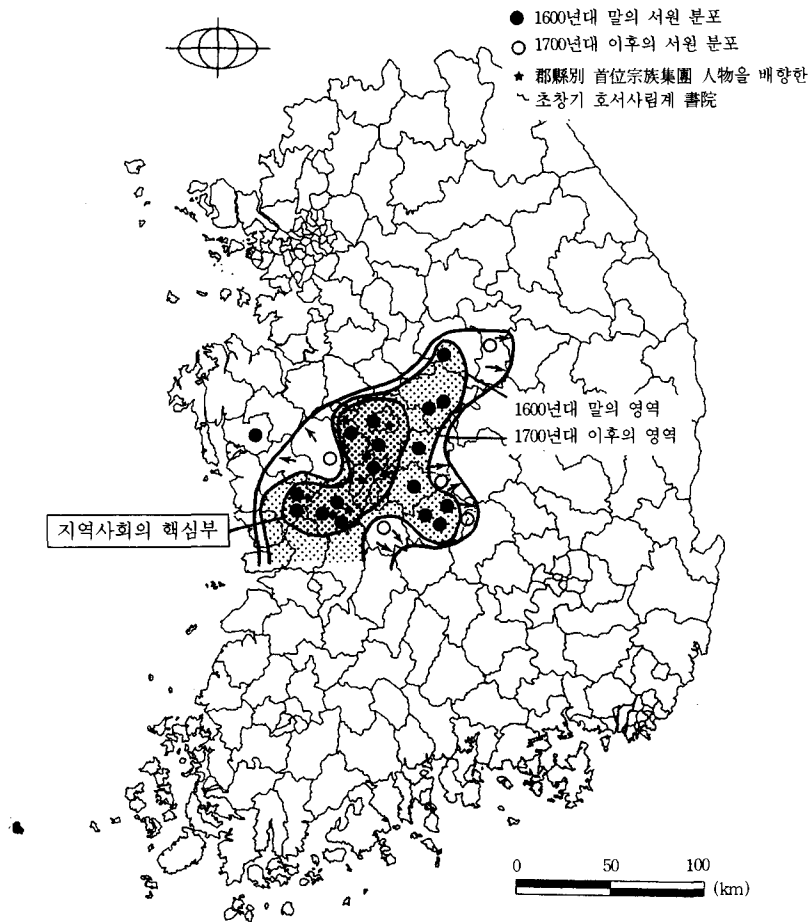
3) '권력 공간' 으로서의 연산

1634년은 호서사림파를 창시한 김장생이 세상을 떠난 해이다. 김장생의 제자들은 그가 평소 후학들을 가르치던 장소에 돈암서원을 건립하여 그의 뜻

을 기리는데, 이 사업은 회덕의 은진송씨 송시열, 송준길을 중심으로 한 그의 주요 제자들과 여기에 연산 주변 니산의 파평윤씨, 전의의 전의이씨 등이 가세하여 이루어진다. 이들은 그 이전부터 양성당과 임리정에 드나들면서 광산김씨와 사회적 관계를 맺어 왔고, 스승 김장생이 세상을 떠나자 돈암서원을 건립하고 김장생을 배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1650년대를 전후로 한 이 시점에서, 돈암서원은 김장생의 강학처에 입지하였다는 장소적 상징성과, 호서사림과 최고의 스승을 제사지낸다는 학문적 계보상의 상징성, 그리고 연산현 주변의 주요 현을 장악하고 있던 유력 수위성씨들에 의해 건립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외부 종족집단들에 의해 인정된 지역적 스케일의 영역적 상징성을 갖게 된다.

돈암서원이라는 경관이 갖는 이러한 상징성은 이 경관이 자리한 연산 지방을 보다 넓은 지역 스케일에서의 핵심지역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중심-주변의 공간구조를 갖는 지역사회(community)를 형성하였다.

돈암서원 창건시에 드러난 지역사회의 핵심부는 당연히 김장생-김집 부자로 대표되는 광산김씨의 연산이었는데, 그 후 다시 이들의 수제자가 회덕의 은진송씨에서 배출되면서 회덕이 실질적 핵심부로, 그리고 연산은 상징적 핵심부로 성격이 부과되어 지역사회 핵심 지역이 이원화된다. 돈암서원이 건립될 즈음 연산현의 광산 김씨는 호서사림과 학연 관계의 확장을 주도하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혼인망의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조선 시기에는 혼



지도 2. 지역사회 영역의 핵심부 연산과 그 영역성의 확대과정

인 및 학연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거주지 이동을 수반하는데, 광산김씨와 사회적 관계 맺기를 해온 연산현 외부의 종족집단들이 연산현 내부를 향해 거주지 이동을 하는데는 제약이 따랐다. 이것은 무엇보다 연산현이 갖고 있는 공간적 수용력의 한계 때문인데, 광산김씨의 본거지인 연산현은 한밭이라는 이 일대 최대의 침식분지를 배경으로 성장한 은진송씨의 세거지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규모였던 것이다. 물론, 연산현에 인접한 서쪽으로 현재의 논산평야에 해당하는 넓은 평지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곳까지의 금강이 감조하천이어서 주변으로 깎벌이 밀려들고 아직 본격적으로 개간되지 못한 공간이었으며, 아울러 山間溪居를 선호하던 조선시기 사대부들의 거주지로는 부적합한 곳이었다. 나아가 연산 이외의 지역에 광산김씨가 건립한 서당은 강경의 임리정이 유일한 것으로 보아, 광산김씨의 사회적 관계 맺기 방식은 유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써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다소 소극적인 것이라는 점 또한 하나의 원인이었다. 반면에, 은진송씨가 정착한 회덕 지방의 사이트(site)는 모든 면에서 광산김씨의 연산지방이 갖는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생태적 환경을 구비하고 있음으로 하여, 점차 연산을 대신하여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핵심부로 되어 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암서원에는 김장생, 김집에 이어 수제자인 송시열, 송준길이 배향됨으로써 명실공히 호서사림과의 적통 계보를 모두 망라하게 되어 학연계보망에서 최고의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그 후 이들을 중심으로 한 호서사림 계보의 인물을 제사지내는 서원들이 연산과 회덕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돈암서원의 상징성은 지역적 영역성(regional territoriality)을 갖게 되고 돈암서원은 모든 호서사림계열 서원들 중 수위서원으로서 존재가 더욱 부각된다. 1692년 광산김씨가 연산에 세운 충곡서원을 시작으로, 1692년 은진송씨의 회덕 정절서원, 1693년 안동권씨의 유성 도산서원, 1699년 전의이씨의 전의 뇌암서원, 1701년 밀양박씨, 초계변씨, 한산이씨의 합동으로 세워진 청주 국계서원, 1702년 파평윤씨의 연산 구산서원, 1718년 은진송씨의 회덕 미호서원, 1719년 전주이씨의 부여 부산서원 등에 이르기까지 돈암서원 이후의 서원들

은 돈암서원의 영역성을 공간적으로 더욱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확장되는 방식은 기존의 서원을 교화시켜 호서사림계 인물을 제사지내도록 하는 방법과, 새로운 서원을 창건하면서 호서사림계 서원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특히, 송시열은 기존의 서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김장생의 학문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더욱 더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서원의 배향 인물의 선정과 그 서열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호서사림계의 서원을 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19세기까지 확장된 호서사림계 서원으로 상징되는 호서 유교문화지역의 영역은 연산과 회덕을 중심부로 하면서 이를 에워싼 옥천, 보은, 청주, 괴산, 진천, 공주, 부여 등지를 아우르는 범위까지 크게 확대된다. 지역사회 영역의 외연적 확대가 학연 관계망으로 상징되는 서원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서원은 학연관계망을 확대재생산하는 상징경관이 되었으며, 영역 확대의 최전선에서 서원은 호서사림과의 배타적 영역성을 선포하는 휘장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서원이라는 상징경관에 의해 영역의 외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영역 내부에서는 다양한 종족집단들의 사회생활에 향약이라는 유교적 질서와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유교적 고전들에 등장하는 지명과 경관들이 새롭게 부과되어 지역사회 영역 안에는 많은 의미 있는 장소들이 충전되어 간다. 이 시기에는 성리학적 세계가 재연되는 공간이 바로 유교적 공간의 중심, 즉 중화세계(中華世界)가 될 수 있다는 소중화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신분별로 철저한 지배와 복종관계를 강조하는 유교적 사회질서의 확립, 유교 경전들에 출현하는 지명 만들기, 그리고 유교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관 만들기가 영역 내에 성리학적 세계의 구현 및 장소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재연된 성리학적 세상에서 살게 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호서사대부, 호서사림파, 충청도 양반이 되는 것이며, 그들이 의미를 채워가면서 만들어낸 많은 장소들과 경관들은 철저한 혈연-지연-학연 복합체로서의 자신들의 존재를 表象하는 것이 된다.

4. 結 論

이 글에서는 연산 지방을 사례로 지역학습 내용 구성의 실재를 추구하고 있다. 학문적 성과가 교과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내용을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것을 다시 교육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내용 구성의 실제 사례에서 학문적 연구 성과를 재구성하여 중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용어와 난이도를 고려하며 내용을 선정하고 그것을 배열해 보았다.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연산 지방에 쌓여 온 세 개의 空間的 層位를 추출하였고, 그것을 이 지방에 살아 온 사람들의 삶의 장소와 경관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장소정체성 및 지역애를 함양시킨다는 목표 하에 지역학습의 스코프와 시퀀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삶의 空間으로서의 연산→社會的 空間으로서의 연산→權力的 空間으로서의 연산'(표 3 참조).

이러한 내용의 학습과정을 통해, 연산 지방을 둘러싼 장소의 의미를 각각 사이트, 경관, 영역이라는 지리적 개념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다. 학습자는 지역학습의 출발점에서 확인하였던 물질경관과 지역관련 담론들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져 온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 전개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사회적 관계 맺기 등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심층적으로 이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連山이라는 공간이 단일한 정체성을 갖지 않으며 시대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성격과 공간 스케일을 갖는 장소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학습자로 하여금 정체성의 다원성을 확

인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내용에서 접하는 지리, 사회, 역사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분들의 통합적, 유기적인 관계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장소들과 경관들의 의미를 알고 그들의 공존 방식을 서로 연관 지워 이해함으로써, 多元的 地域 正體性을 인식하고 地域愛를 함양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차적으로, 각종 이야기와 사례들을 접하면서 학습자는 어떠한 지리적 개념들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지리적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라는 지리교육 고유의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지역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장소의 의미와 상징경관의 이해, 지역정체성의 다원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아닌 외부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도 그 지역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는 심성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내용구성에서 필자가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지역학습의 내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지역을 구성하는 누층적 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역학습의 결과가 자칫 지역에 대한 감정적 사랑, 즉 지역주의(regionalism) 학습으로 전락할 우려를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삶의 공간→사회적 공간→권력 공간', '지리적 조건-사회적 요인-역사적 변화', 'local→inter-local→regional', '물질적 경관-상징적 의미-지역사회' 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지역의 누층적 차원을 보여주는 지역학습은 지역정체성의 다원성은 물론이고

표 3. 지역학습 내용구성의 스코프와 시퀀스

내용선정의 준거	스코프 (scope)				
	학습내용	중심적 하위개념	공간 스케일	역사 시기	
1. 경관(역사지리적경관): 유교문화경관 유교문화지역	삶의 공간 [생태적 공간]	사이트(site) 생태적 환경	local [연산]	1400-1500	시 퀀 스 ↓
	사회적 공간	상징경관 권력이식형 경관 시혜·교회형 경관	inter-local [연산-회택]	1500-1650	
2. 지역관련 담론: 호서사립과 충청도양반	권력 공간	영역(territory) 중심-주변 구조	regional [충청·전라도일원]	1650-1800	

지역에의 함양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물론, '권력 공간'에 이어지는 네 번째의 공간으로서, 가령 '자본주의 공간-national/international-생산과 소비의 경관'과 같은 또 하나의 층위를 부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지역학습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다만, 지역학습의 결과는 학습자와 교사 사이의 교감을 통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접 학생들을 접하며 지역학습을 진행한 교사는 그것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註

- 1) 교육과정의 지역화란, 교육과정 전체를 현지 교사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 법정 교육과정 중 향토 및 지방 관계 부분을 떼어서 현지 전문가(가령, 교수나 교사)가 가르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임덕순, 1990). 그러나, 여기서는 제6차 및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견지하고 있듯이 '사회과교육에서 향토와 관련된 부분만을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 용어를 정의한다.
- 2) 伊東亮三은 사회과에서의 지역학습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바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학습: 입문으로서의 지역학습: 지역지리의 학습: 샘플지역의 학습(伊東亮三, 1983, 29-39).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형은 첫 번째 것이며, 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것도 그것이므로 본 고에서도 이 정의에 따른다. 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현행 초등교육과정의 지역학습 단위를 근거로 하여 道 단위 이하로 상정한다.
- 3) 한국교육개발원, 1997, 사회과교과학연구, pp. 2-26.
- 4) 김영석, 1994, "주변학습을 통한 세계학습의 가능성 탐색," 사회과교육, 27, pp. 96-97.
- 5)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p. 258.
- 6) 이 표의 항목 중에서 '목표', '지역 개념', '학습내용의 특징'에 관한 부분은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지역학습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중등학교 사회(지리) 교과서에 제시된 지역지리 부분의 학습목표와 내용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역학습 및 지역지리교육의 '태생적 배경' 및 '내용선정의 준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하였다: 김일기, 1984; 김용만, 1986; 인정옥, 1988; 김영석, 1994; 남상준, 1995; 1999; 권혁풍, 1995; 황홍섭, 1995; 권정화, 1997; 박승규·심광택, 1999; 남호엽·김일기, 2001; 최홍규, 2001.
- 7) 전중환, 1997, "Mikhail Bakhtin의 'dialogism': 社會科教育에 대한 그 含意," 사회과교육연구, 4, p. 98.

- 8)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p. 250.
- 9) 여기서 재구성되고 있는 지역학습 내용구성의 기본 자료는 본인의 학위논문의 일부에서 추출한 것.
- 10) 이하에서 진한 단어로 표현된 것은 각 단계에서 활용되는 주요 지리적 개념들임.
- 11) '連山에 거주하는 광산김씨'의 줄임말.

文 獻

- 곽병선, 1995, "2000年代 教育課程을 위한 개혁의 방향," 제7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 권정화, 1997, 지역인식논리와 지역지리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권혁풍, 1995, 지역화논리에 따른 한국 사회과교육과정의 분석,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석, 1994, "周邊學習을 통한 세계학습의 가능성 탐색," 사회과교육, 27, 96-105.
- 김용만, 1986, "사회과 교육과정 地域化 방안의 배경과 접근법," 사회과교육, 19, 9-18.
- 김일기, 1984, "地誌 教育의 제문제,"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 방법(석천 이찬 박사 화갑기념 논집), 서울: 교학사, 595-613.
- 남상준, 1995, "지역교과서 편찬의 필요성과 전망: 획일적 교육의 한계 극복을 위한 도구로," 고대교육신보, 226.
- 남상준, 1996, "사회과 지역교과서의 비판적 검토," 충북사회과교육, 2.
-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남호엽·김일기, 2001, "지역학습에 있어서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제주도 지역교과서 분석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6(4), 483-494.
- 박승규·심광택, 1999, "'경관'과 '기호' 표상을 활용한 지역학습," 대한지리학회지, 34(1), 85-98.
- 서재천, 1987, "국민학교 지역사회학습의 意義와 유형에 관한 고찰," 사회과교육, 20, 178-192.
- 이양우, 1986, "경남지역의 사회과교육 지역화방안," 사회과교육, 19.
- 이영민, 1999, "地域正體性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 이해준, 1999, "한국 郷土史 教育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역사교육, 3·4, 237-254.
- 인정옥, 1988, "교육과정 地域化의 의의," 새교육,
48, 26-33.
- 전중환, 1997, "Mikhail Bakhtin의 'dialogism': 社會
科教育에 대한 그 含意," 사회과교육연구,
4, 93-109.
- 전중환, 2001, "地理教育에서 村落이 갖는 의미,"
지리과교육, 3, 7-18.
- 전중환, 2002, 宗族集團의 居住地 移動과 地域化過
程: 14~19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박
사학위논문.
- 조남강, 1991, "地域化教育과 그 방안에 관한 연
구," 지리학연구, 18.
- 조성옥, 1997, "日本の '지역학습' 에 관한 고찰," 지
리환경교육, 5(1).
- 최홍규, 2001, 지역지리 내용 구성과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황홍섭, 1995, "지역지리학습에 있어서 음악작품의
활용,"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창간호, 103-
116.
- 朝倉隆太郎先生退官紀念會 編, 1985, 社會科教育と
地域學習の構想, 東京: 明治圖書.
- 伊東亮三, 1983, "地域學習と社會的問題の教材化,"
教育科學/社會科教育, 240, 明治圖書.
- Hart, R., 1979, *Children's experience of place*, New York:
Irvington.
- Matthews M.H., 1995, "Culture, environmental
experience and environmental awareness:
making sense of young Kenyan children's
views of place," *The Geographical Journal*,
161(3), 285-295.
- Pred, A., 1984, "Place as historically contingent
process: structuration and the time-geography
fo becoming places," *Annales of the AAG*, 74,
279-297.

원 고 접 수 일 2002. 3. 25

최종원고접수일 2002. 6. 8